우리 나라 산업위생의 발전 방향

The Prospect of Industrial Hygiene in Korea

金 光 鍾*
Kim, Kwang Jong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1. 산업위생관리의 중요성

198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유해작업 환경과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1981년도에 재정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며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산업보건의 목표 중 "근로자가 취업하는 동안에 건강피해를 일으킬 유해환경요인에 폭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작업의 질적, 양적 증대와 더불어 새롭고도 묵은 물리, 화학적 제반 요인들에 의해 직업병을 유발시키고 고급인력 손실 등의 인적손실이 발생되며 작업능률의 저하, 기존 시설장비 및 제품 등의 부식, 결손이 생기는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변화되어 생존권의 요구로부터 생활권의 요구로 전환되었으며 노사간의 인명존중이 쟁점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으로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오늘날 주요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유능한 노동력을 보존하고 근로자의 인명을 존중하며 생산능률을 향상시켜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 산업위생관리의 중요한 점이다.

2. 작업환경관리의 추진방향

산업현장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원치 않는 여러가지 유해환경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인지하며 이들 요인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이공학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분야를 산업위생관리라 한다.

산업위생관리분야에서 근로자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해인자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가 중요한 중심 업무가 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의 취급방법, 작업자세, 작업의

특수성과 같은 작업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근로자 개개인의 유해인자로부터의 노출을 억제하고자하는 작업관리 역시 산업위생관리 면에서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작업환경관리는 근로자 개인 또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집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로 이공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작업환경관리는 품질관리와 같은 Total Quality Control (TQC)의 하나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목적과 업무내용은 상이하여도 추진방향과 생각하는 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즉, 품질관리는 생산활동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에서 불량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나 작업환경관리에서는 작업환경의 상태를 유지하여 불량한 유해환경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방향은 작업장내 유해한 인자를 제거 내지는 감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일이다.

3. 산업보건기준의 선진화 추진 요인

국내에서 산업보건기준의 세계화를 추진해야하는 요인으로는 노사분규의 최근의 양상이 임금인상 요구 등의 생존권인 주장에서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자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근로자의 참여가 많아졌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노동인권을 존중하여 경제논리만이 아닌 노동생활의 질과 노동인권의 문제가 국제경제 질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는 기업의 직·간접비용을 증대시켜서 기업 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율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대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된다. 유해환경으로 인해 공장시설 기자재 및 장비의 손상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비용이 증대되며 상기 비용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하락시킴은 물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산재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와 이로 인한 초과 근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외적으로는 1991년 세계노동기구에 가입한 이후 노동기준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협약들을 비준하기 시작하여 세계화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 등으로 인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수출입의 상품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산업보건 선진화 계획이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위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산업위생 발전에 관한 제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일일 평균 260명의 재해자와 4명의 직업병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인적 손실 이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 보상금이 1조3천5백5십3억원이고 간접 손실액이 5조4천2백1십3

억원으로 총 6조7천7백6십6억원이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산업보건 문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지라도 경제적 논리나 인간 존중의 논리 양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하고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정책 입안자나 근로자, 사업주, 산업보건 관련자 등 모두는 재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보건 발전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직업병 발생은 유해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공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숙련공의 건강보호는 그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생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즉, 현행 건강진단 위주의 관리에서 유해 작업환경관리에 중점을 두며 현행 작업환경 측정 위주에서 종합적인 작업환경 관리 제도로 변환시켜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직업병자의 사후처리로부터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산업보건 예방사업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되며 업종별, 지역별 직업병 예방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방안을 개발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보건 서비스가 용이하게 한다.

4) 향후 산업보건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산업보건 서비스 공급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원고접수일 1999. 5. 12)